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번역교육 중 기계번역 활용 고찰*

- 외국인학생 대상 설문조사 기반 -

김지은**

Jieun Kim (2023). A study on the use of machine translation in teaching Korean translation as a foreign language: Based on a survey targeting foreign students. *The use of machine translation in everyday life is no longer a new phenomenon, as people are now resorting to MT at the professional level as well.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is approach is now frequently applied to localize online games and translate manuals, for example. In addition, institutions such as the Korean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re discussing ways to use machine programs to translate laws, regulations, and other texts under a standardized style. Post-editing of machine translation is partially taught in Korean translation classes, but its approach remains passive and lacks consideration for foreign students. In particular, foreign students majoring in Korean translation as a foreign language have different goals from those of native Korean speakers in a master's degree program for translation studies. Therefore, this study deemed it necessary to consider the opinions of foreign 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translation regarding machine translation.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foreign 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Korean translation as a foreign language regarding the use of machine translation in their assignments and to propose appropriate methods for utilizing machine translation. The survey results showed that the utilization rate and positive response to machine translation were higher than expected, and some students used machine translation for various purposes in their assignments and responded that it helped with translation learni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 이 연구는 2023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조교수

Keywords: machine translation (MT), translation, translation education, Korean translation as a foreign language, translation education curriculum

주제어: 기계번역, 번역, 번역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번역, 번역교육 커리큘럼

1. 서론

기계번역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기계번역 자체를 부정하는 초기 시각에서 기계번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로 학계의 시선이 바뀌었고, 이는 기계번역의 포스트에디팅과 번역교육과정에서 그에 대한 역할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번역교육에서 포스트에디팅에 대한 고민은 그 과정과 결과적 측면에서 계속 제기되어왔으며, 이는 번역 수업 중 포스트에디팅 교육 진행 등으로 반영되었다. 다만, 아직까지 번역교육에서 기계번역의 활용은 비교적 소극적 단계에 머물러 있고, 대부분 한국어를 모국어, 즉 A언어로 하는 통번역 석사과정 또는 학부 과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통번역을 학습하는 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있고, 통번역 학부 과정에도 다수의 외국인 학생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대학에는 외국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 교육과정¹⁾이 개설되어 운영 중이다. 물론, 기존 통번역 석사과정 및 학부에도 외국인 학생들이 존재하나,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내국인 중심으로 교육 과정이 설계되어 있고, 특히 석사과정의 경우 국제회의 통역 등에 적합한 ‘전문통번역사 양성’을 최종 목표로 한다. 하지만 통번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다수의 외국인 학생은 전문 통번역 석사과정에 참여할만한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이들은 국적에 따라 각기 다른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으며, 한국어 능력도 역시 제각각인데다 학습의 최종 목적 또한 국제회의 통번역사가 아닌, 고급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업무에 필요한 번역을 하거나 초급 번역사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번역 석사과정 외국인 학생은 내국인 통번역 전공 학사 또는 석사생과 한국어 활용 능력 및 번역 학습 목표가 다르고, 번역 능력을 키우고자 한다는 점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과도 다르다. 때문에 이들의 능력과 수요에 적합한 번역교육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외

1) 세종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단국대학교 등 일부 대학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 전공’이 개설 운영 중이며,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주간 석박사 통합과정과 야간 석사과정을 운영 중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번역교육과 관련한 연구는 많지 않다. 심지영(2021), 함계임(2022) 등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번역 교육에 대해 논했으나 전자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번역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을 조사하였고, 후자는 번역을 위한 읽기 수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번역 학습과 기계번역과의 연계나 이에 대한 외국인 학습자들의 인식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선우와 이상빈(2023)의 지적처럼 기계번역에 대한 인식 연구는 전문번역사와 통번역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번역 석사과정 학생들은 기계번역을 사용하는 목적, 이유, 방법, 빈도 등이 내국인 학부생 또는 전문통번역 석사 과정생들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이들을 위한 적절한 교육 설계도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번역 석사과정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기계번역 활용 빈도와 목적, 효과, 사용 이유, 교육 중 기계번역 활용에 대한 인식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교육에 참고하고자 한다.

2. 기계번역과 번역수업에 대한 논의

2.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번역교육

한국이 문화, 산업, 경제 등에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각 대학이 적극적으로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면서 국내 대학에 외국인 학생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각 대학에 기존 설치 학과에 외국인 학생이 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수업을 받는 방식이었으나 국내외에서 한국어 학습 및 통번역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면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뿐만 아니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 교육이 수업 커리큘럼에 포함되거나 관련 학위 과정이 설치되었다. 심지영(2021)은 국내 통번역 시장의 다변화와 기계번역 활용 확산 등으로 향후 전문 통역사 외에 외국인 인력의 활용이 강조될 것이라 언급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통번역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번역 전공 학부, 석사 또는 석박사 과정이 운영 중이고 그에 관

한 연구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임형재·송은정(2015), 윤창숙(2022) 등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번역교육과정 교과목 설계와 교육 필요성 등을 논했고, 함계임(2021)은 번역 교육에서 한국어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심지영(2021)은 국내 대학의 외국어로서의 번역전공 교육과정 설계를 조사 분석하였다. 그러나 대상이 중국어권 학생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고, 번역교육과 기계번역의 연계나 활용 등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기계번역에 대한 외국인 학습자들의 인식 조사나 분석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외국인 학생의 유입 증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초기 중국어권 학생이 절대 다수였던 상황에서 이제는 미국, 유럽, 동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과 국가 출신의 외국인 학생들이 국내 대학에서 학습 중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결혼, 취업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회통번역, 초벌번역 등 전문통번역사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종사하는 통번역 분야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 언어 종류 또한 다양해졌다. 실제로 본 연구자가 3년 연속 참여한 난민통역인인증시험 및 법정통번역인 인증시험 응시자 배경을 보면 상당수가 외국인이고 국내에 통번역 혹은 외국어 전공학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언어는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 응시자의 비율이 높았다. 난민통역인은 번역 업무가 적으나 법정통번역인의 경우 판결문, 피고인 반성문, 증거자료 등 번역 업무가 상당하기 때문에 번역 교육을 받은 인재가 필요하다. 또한 임형재와 송은정(2015)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가 자신의 미래 업무로 한국어 번역을 선택했고, 번역 관련 대학원 진학 희망이 37%였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번역교육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할 것이며, 관련 교육 설계 또한 이들의 수준과 특성, 요구에 맞춰 전문 번역교육과는 다른 시각에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번역교육 과정 중 기계번역 활용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외 통번역전공 석사과정에는 CAT tool 활용에 대한 수업이 별도로 개설되어 있고, 수업 중 교수자가 기계번역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와 논의도 활발하다. 그러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번역교육 과정에는 CAT tool 활용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고, 수업 중에 교수자가 기계번역을 활용하거나 그 결과물을 포스트에디팅하는 교육도 거의 실시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과제 제출물 등을 통해 학생들이 기계번역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여러 흔적들이 발견되며, 모두가 알고 있듯 기계번역은 여행, 쇼핑, 정보수집

등 여러 방면에서 이미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번역교육에서 이를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다. 때문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전공 석사생들이 기계번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시점이라고 여겨진다.

2.2. 번역 수업에서 기계번역 활용에 대한 논의

기계번역에 대한 논의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화두가 아니다. Naver의 Papago 나 Google의 번역 서비스를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GPT Chat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외국어 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이들 기계번역 서비스를 온라인 사전처럼 이용하는 사례도 종종 목격된다. Chrome이나 Microsoft Edge 등과 같은 인터넷 브라우저는 자동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외국 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고, 여행 유튜브가 통번역 앱을 사용해 의사 소통하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기계번역은 일상에 상당히 근접해있으며, 그 결과물 또한 과거에 비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정교해지고 있다. 번역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예외적이지는 않다. 이현주와 린위쑤안(2021: 424)의 지적처럼 학생들에게 작문이나 번역 과제는 더 이상 교재나 사전을 참고해 스스로 어휘를 찾고 문법을 공부하며 일일이 써내려가는 과업이 아니다. 때문에 국내 학부 수업이나 통번역 석사 과정에서 CAT tool을 활용한 수업이나 ‘포스트 에디팅’의 이름으로 기계 번역을 활용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통번역 석사과정에서도 이미 번역 툴과 같은 기계적 도구의 활용을 커리큘럼에 포함시키고 있다(Arenas and Moorkens 2019). 이상빈(2018), 마승혜(2018), 이현주와 린위쑤안(2021) 등과 같이 학부생을 대상으로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교육 실태와 특성, 향후 교육 방향 등을 고민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이상빈(2016, 2017, 2018a)은 기계번역의 포스트에디팅 교육과 문제점, 향후 번역 교육에서 기계번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였다. 기계번역을 번역 학습자가 과업 수행 중에 사용하는 통상적인 수단으로 인정하고 포스트에디팅 교육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번역 교육에서의 기계번역 활용과 관련하여 박혜경(2018), 김혜림(2021) 등 주로 번역 전공 학부생 또는 통번역대학원생의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결과물을 분

석하여 학생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 등을 제시 정리하는 한편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고, 케니와 도허티(Kenny and Doherty 2014), 로씨(Rossi 2019), 아레나스와 무어켄즈(Arenas and Moorkens 2019) 등은 기존에 이미 활용되고 있는 여러 번역툴에 더하여 번역 교육 커리큘럼 설계에서 기계번역의 활용을 고민하고 그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도허티와 무어켄즈(Doherty and Moorkens 2013)는 기계번역을 수업에 활용하고 학생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었다고 언급하며, 향후 수업 모델 개선에 활용할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렇듯 번역 교육에서 기계번역과 관련한 논의는 첫째 새로운 커리큘럼 도입을 위한 실험적 관점에서의 사용, 둘째 포스트에디팅 시 학습자가 범하는 오류 분석 셋째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 주를 이루어왔으며 이러한 연구는 내국인 통번역 전공 학부생 및 석사생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통번역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기계번역 사용 실태 조사를 하는 연구도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강수정(2021)은 통번역대학원 학생들에게 기계번역 사용 여부와 사용 빈도, 자주 사용하는 기계번역도구, 사용 목적, 그에 대한 만족도 등을 설문 조사하였고, 최근에는 이선우와 이상빈(2023)가 통번역전공 학부생을 대상으로 기계번역 사용에 관한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만, 기계번역의 사용 상황과 더불어 번역사라는 직업에 기계번역이 미칠 영향을 함께 조사했다는 점이 기존 연구와 다르다. 이 연구에서 기계번역에 대한 품질 만족도와 호의도가 높게 나타나 흥미롭게도 강수정(2021)의 연구 결과와 대조되었는데 이는 전문통번역사를 목표로 하는 통번역대학원생과 학부생 간의 기계번역 결과물에 대한 평가 기준 차이와 번역사 직업에 대한 위협 등이 변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본다. 이는 이선우와 이상빈(2023)에서 기계번역이 번역사 위상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문항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것과 관련하여 볼 수 있다. 이렇듯 동일하게 통번역을 전공하는 학생임에도 전문통번역사를 목표로 하는 석사과정생과 학부생의 인식에는 차이가 있다. 기계번역에 대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을 전공하는 외국인 학생의 인식에도 통번역대학원 석사생 및 통번역전공 학부생과는 다른 부분이 존재할 것이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 교육과정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이를 조사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3. 기계번역에 대한 인식조사

3.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조사는 서울 소재 H 대학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번역’을 전공하는 외국인 석사과정생 중 번역 수업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2, 3, 4학기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²⁾, 조사 기간은 2021년도 2학기부터 2022년도 2학기까지 총 3개 학기이다. 조사는 구글폼을 활용하여 익명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총 73명이 응답하였다. 수업을 통해 설문조사 관련 내용을 고지하고 학생들에게 협조 요청 후, 응답 링크를 전달하였다. 설문문항은 총 22문항(객관식 17문항, 주관식 5문항)이며, 일부 객관식 문항에 ‘기타’ 항목을 두어 해당 문항에 대한 상세 의견을 취합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4장 결과 분석에서 상세 제시하겠다.

3.2. 설문 구성

설문 문항은 국적, 사용언어 및 번역수업 수강 경험을 묻는 배경 질의와 번역 과제 작성 시 기계번역 사용 현황 질의, 기계번역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 질의, 번역 중 기계번역 활용에 대한 의견 등 4개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응답자 배경 문항 중 국적 및 사용언어, 한국 체류기간은 학생 구성원의 국적과 사용언어 및 상황이 다양하여 주관식으로 질의하였으며, 그 외 문항은 객관식으로 질의하였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응답자 배경관련 문항

질의 형식	문항 내용
주관식	귀하의 모국어 및 국적을 적어 주세요.
주관식	한국에 체류한 기간을 적어 주세요.
객관식	귀하는 현재 몇 학기에 재학 중입니까?
객관식	매 학기에 평균 몇 가지의 번역 수업을 수강했나요?
객관식	각 번역 수업에서 매주 과제가 어느 정도 부여되었나요?

2) 본 연구의 목적은 번역을 전공하는 외국인 학생이 기계번역을 어떻게 인식하고 번역 수업 및 과제 작성에 활용하는지를 파악하는데 있으므로 번역수업 참여 경험이 없는 1학기 신입생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번역 수업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기계번역을 얼마나,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표 2와 같이 번역 수업 중 기계번역 활용 유무, 과제 작성 중 기계번역 사용 여부 및 빈도, 기계번역 사용 이유 등을 질의하였다. 특히 번역과제 작성 시 기계번역 사용 이유와 그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했는가에 대하여는 ‘기타’항목을 두어 상세 의견을 함께 수집하였다.

표 2. 기계번역 사용 현황관련 문항

질의 형식	문항 내용
객관식	번역 수업에서 교수자가 기계번역을 활용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몇 번 정도였나요?
객관식	번역 과제 작성 시 기계번역(번역기) 방식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객관식	번역 과제 작성 시 기계번역을 몇 번이나 사용했습니까?
객관식	어떤 자동 번역 프로그램을 사용했나요?
객관식	어떤 언어 방향으로의 번역에서 기계번역을 활용했습니까?
객관식+주관식	기계번역을 사용해 과제를 작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객관식+주관식	기계번역을 사용한 후 그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했나요?

한편, 기계번역 사용 결과 그 만족도에 관하여는 총 4문항을 질의하였으며, 특히 기계번역을 사용하지 않거나 결과물에 대한 불만족한 경우 상세 사유를 기타 의견으로 수집하였다.

표 3. 기계번역에 대한 만족도

질의 형식	문항 내용
객관식	기계번역의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객관식+주관식	기계번역의 결과물에 만족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객관식	기계번역의 결과물에 만족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객관식+주관식	번역 과제 작성 시 기계번역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기계번역과 번역 능력 간의 연관성, 번역 수업 중 기계번역 활용에 대한 의견 등을 주관식 문항 중심으로 질의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번역교육 중 기계번역 사용에 대한 의견

질의 형식	문항 내용
객관식+주관식	향후 번역 과제에 기계번역을 활용할 계획이 있나요?
객관식	기계번역을 활용한 번역 과제 작성이 본인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주관식	만약 기계번역 활용이 번역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객관식	기계번역을 번역 수업에서 정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주관식	기계번역을 수업 시간에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관식	기계번역을 수업 시간에 활용할 필요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표1~4의 문항들을 통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번역 전공 석사과정생들이 기계번역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활용 방향은 어떠한지 조사해 보았다.

4. 결과 분석

4.1. 응답자 구성 및 수업현황

응답자의 국적 및 지역 구성은 중국(51명), 타이완(8명), 일본(4명), 베트남(3명), 홍콩(2명), 러시아, 말레이시아, 미국, 브라질, 우즈베키스탄(각 1명)으로 중국 및 중국어권 지역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국적이 다양 화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중국 및 중국어권 지역·국가의 비율이 높고, 이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전공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에 따라 모국어도 중국어가 60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어(4명), 광둥어와 베트남어(각 3명), 러시아어(2명), 영어, 우즈베크어, 말레이시아어, 브라질어, 한국어(각 1명) 순으로 나타났다³⁾. 그림 1에서 응답자 국적 구성을 그래프로 구현하였다.

3) 응답자 중 이중언어 사용자가 있어 모국어의 총 합은 전체 응답자수와 상이하며, 한국어 및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조선족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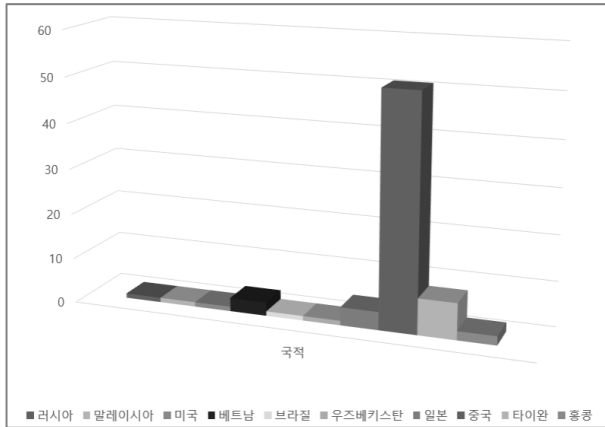


그림 1. 응답자 국적 및 지역 분포

이들의 체류 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상 3년 미만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 장기 체류자도 21명으로 적지 않았다. 장기 체류자의 경우 학부 과정 또는 한국어 어학연수를 한 후, 대학원 과정에 진학한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1년 미만의 단기 체류자는 13명으로 번역전공 대학원 과정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여 진학한 경우이다. 한편, 응답자 중 2명은 체류 기간을 묻는 질문을 ‘체류기한’으로 잘못 이해하고 비자 만료 기한으로 추정되는 날짜를 기입하여 집계에서 제외하였다. 체류 기간별 응답자 비율은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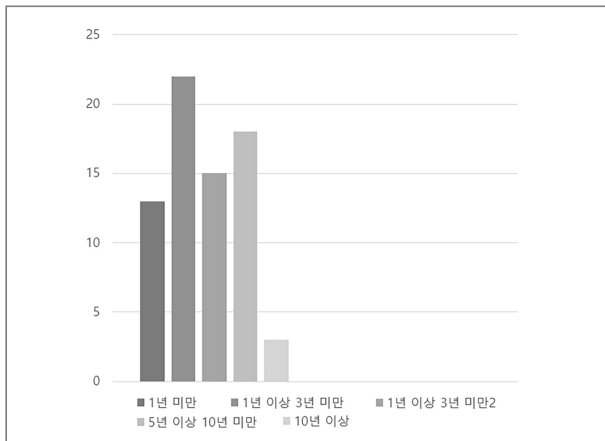


그림 2. 응답자 한국 체류기간 분포

응답자의 64%가 2학기 재학생이었고, 4학기가 20.5%, 3학기가 15.1%였는데, 이들의 매 학기 평균 수강 번역수업 과목 수는 2~3개가 65.8%로 과반수 이상이었다. 한편, 각 번역수업별 평균 과제량은 2~3장이라고 답한 비율이 64.4%로 가장 높았으니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많은 학생들이 대략 매주 적게는 4장에서 많게는 9장의 번역 과제를 수행하는 셈이다.

4.2. 기계번역 활용 현황

번역수업 외에 번역학 개론이나 한국어 글쓰기, 고급 한국어 등 수업을 함께 수강하니, 4.1에서 조사된 매주 번역과제 분량을 더하면 과제 부담이 적지 않다 하겠다. 그래서일까? 응답자의 79.5%가 번역과제 작성을 위해 기계번역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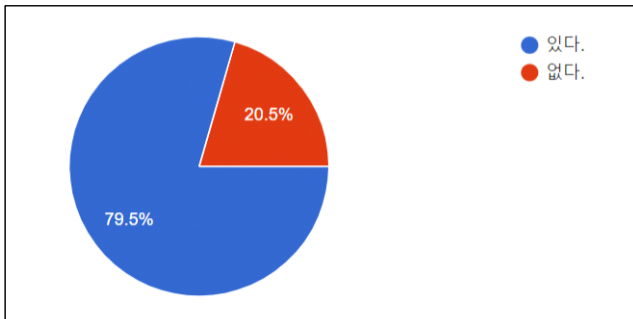


그림 3. 기계번역 사용 유무

그러나 사용 빈도는 3회 미만과 5회 미만이 각각 41.7%와 20%로 절반 이상이 낮은 빈도로 사용했다 밝혔고, 10회 이상의 다빈도 사용은 16.7%에 그쳤다. 자주 사용하는 기계번역으로는 파파고(papago)가 74.6%로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기타 답변으로 ‘네이버 번역기’, ‘네이버’, ‘네이버 사전’ 혹은 파파고를 포함한 복수의 기계번역 서비스를 적은 응답자도 있어 실제 파파고 사용 응답 비율은 더 높다. 복수 응답에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 구글 사용비율은 13.6%로 낮았는데, 이는 강수정(2021: 58)의 언급처럼 파파고가 한국어 알고리즘에 특화되어있다 평가받기도 하고, 그에 반해 구글 기계번역의 한국어 번역 품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어권 응답자 수가 높음에도 본인의 모국어 기반인 바이두(百度) 번역 서비스⁴⁾만 단독 사용한다는 응답은 없다는 점이다.

한편, ‘번역수업에서 교수자가 기계번역을 활용한 적이 있는가?’에는 ‘사용한 적이 없다’가 69.9%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사용하더라도 5회 미만인 경우가 15.1%로 전반적으로 번역수업에서 기계번역의 활용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CAT tool 수업을 별도로 개설하고 포스트에디팅 교육을 실시하는 등 번역도구로서 컴퓨터 프로그램 도구 및 기계번역 활용을 번역교육에서 확대해가고 있는 통번역대학원 및 번역전공 학부 상황과 대조적이다.

기계번역 사용 언어 방향은 모국어에서 한국어 방향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양방향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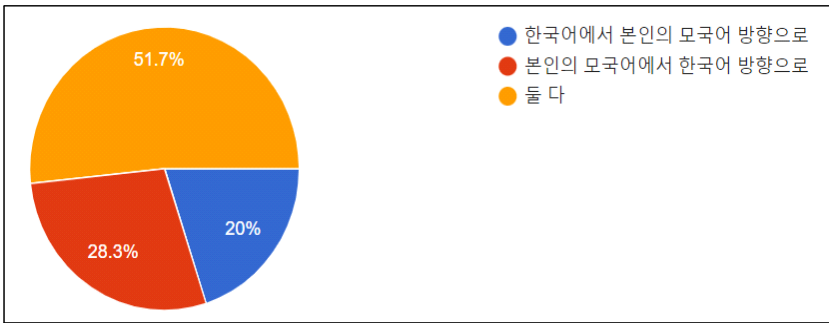


그림 4. 기계번역 사용 언어방향

사용 언어 방향이 양방향인 51.7%로 가장 많고, 모국어에서 한국어 방향으로가 28.3%로 20%인 한국어에서 본인 모국어 방향으로 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한국어 방향으로 번역 시 학생들이 더 어려움을 느끼며, 기계번역을 사전과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선우와 이상빈(2023)에서도 학부 전공자들이 기계번역을 ‘자연스럽고 떳떳하게’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학생들이 ‘기계번역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준다’는 생각보다 사전처럼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도구’로 인식하는 이유도 일정부분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기계번역을 사용해 과제를 작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전자사전 쓰듯 사용합니다’,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 주로 단어를 검색합니다’, ‘단어의

4) 동명의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계번역 서비스.

뜻을 몰라서 사전으로 이용합니다’ 등의 답변이 있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은 과제 분량보다는 난이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기계번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계번역 사용 이유에 대해, 응답자 중 14명(23.3%)이 ‘과제가 어려워서’라고 답했고, ‘과제가 많아서’라는 응답은 3명(5%)에 불과했다. 그밖에 ‘기계번역을 한번 사용해보고 싶어서’와 ‘기계번역을 사용해도 학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가 각각 11명(18.3%)로 동일하였다. 즉, 기계번역에 일종의 ‘호기심’이 일부 존재하며, 한편으로는 ‘일상적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사전으로서의 사용’, ‘자기 번역과의 비교’, ‘수업 중 교수자의 지시에 따른 사용’, ‘본인이 작성한 과제를 점검하고자 할 때’ 등의 목적으로 기계번역을 사용한다는 기타 응답이 있었다. 이들 답변을 보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전공 학생들은 과제를 교수자에게 제출하여 피드백을 받기 전에 본인의 과제가 문제없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으며, 그것을 기계번역을 통해 확인받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응답자의 90% 이상이 기계번역의 결과물을 확인하고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했다고 밝혔고, 5%가 문제가 없는지 한 번 확인하고 사용했다고 답하였으며, 본인이 한 번역과 기계번역 결과물을 비교해 수정하거나 그 일부를 차용했다고 답한 경우가 5%로 결국, 기계번역의 결과물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응답은 없어 기계번역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3. 기계번역에 대한 만족도

4.2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기계번역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도는 높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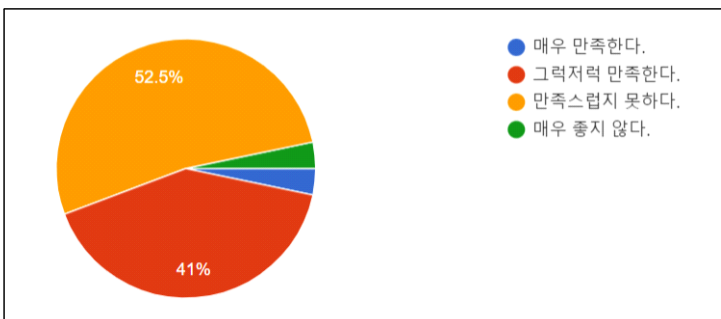


그림 5. 기계번역 만족도

그림 5에서 52.5%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답했고, 매우 좋지 않다는 답변도 3.3%이었다. 그에 반해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은 3.3%에 불과해 기계번역이 한국어 번역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내놓지 못함이 재차 확인되었다. 특히, 기계번역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 70.7%가 ‘번역의 부자연스러움’을 꼽아 학생들이 생각하는 ‘번역’의 기준에 기계번역의 결과물이 부합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신뢰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 문법 오류와 오역 등을 불만족 이유로 고른 경우가 각각 10.3%와 15.5%였고, ‘특정 문화항목 번역의 경우 오류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는 ‘번역 과제 작성 시 기계번역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문항에서 54.8%가 ‘기계번역 결과물을 신뢰할 수 없어서’라고 답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밖에 기계번역이 학습에 방해가 된다고 답한 경우 24.7% 있었으나, 금 번 설문에서 기계번역을 과제 작성에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학생들이 기계번역 사용을 학습 방해요인을 인지하지 않고, 편리함을 제공해줄 ‘도구’로 인식함이 거듭 확인되었다.

한편, ‘기계번역의 결과물에 만족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에 대하여 ‘시간이 절약된다’가 5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도 학생들이 기계번역의 ‘품질’보다는 ‘편이성’에 주목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내가 번역한 것보다 표현이 훌륭하다’는 답변이 39%, 정확도가 높다는 답변도 4.9% 있었는데, A 언어(모국어)와 B언어(전공 외국어)가 비교적 균형이루는 통번역대학원 석사생들과 달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전공 외국인 학생들은 모국어에 비해 한국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난 평가가 아닐까 짐작해본다.

4.4. 기계번역 활용에 관한 견해

기계번역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감과 신뢰에도 불구하고 79.5%의 응답자가 ‘향후 번역 과제에 기계번역을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전혀 사용 계획이 없다’는 16.4%였고,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유보적 입장도 소수 있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번역 교육에서 ‘학습 도구로서의 기계번역’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학생들은 기계번역 사용이 본인의 번역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고 있는데 이는 강수정(2021)이나 이선우와 이상빈(2023)의 결과와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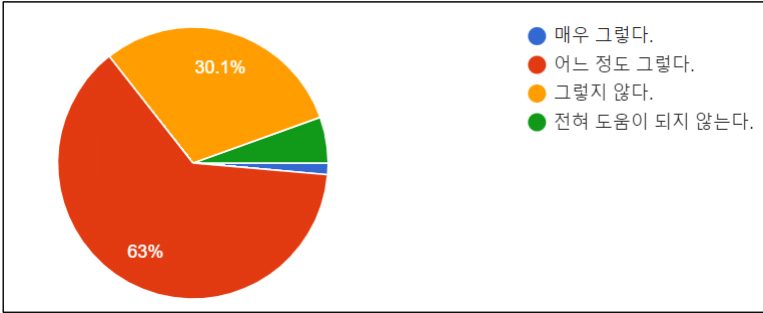


그림 6. 번역 학습에 대한 기계번역의 유용성

그림 6에서 기계번역을 사용한 번역과제 작성이 본인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 대답이 과반수(‘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63%, ‘매우 도움이 된다’ 1.4%)를 넘어섰다. 그 이유를 묻는 주관식 문항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생각지 못했던 한국어 표현’을 얻을 수 있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시간 절약’ 등의 이유도 있었다. 즉, 한국어 능력이 모국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외국인 학생들은 기계번역을 통해 본인들이 생각해내지 못하는 다양한 한국어 표현을 찾을 수 있다는 면에서 번역학습에서 기계번역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번역을 번역수업에서 정식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 54.8%, 긍정 45.2%로 부정적 입장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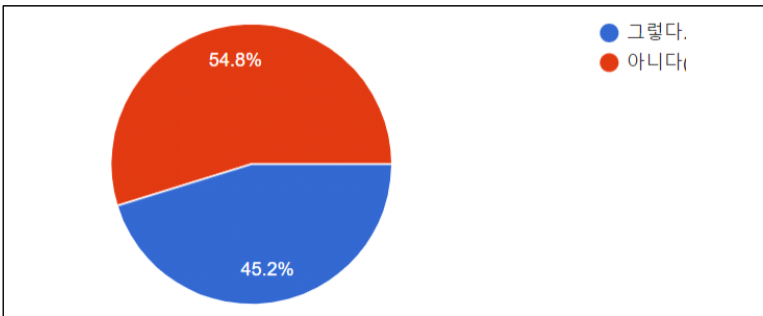


그림 7. 번역교육 중 기계번역 사용여부

높게 나타났다. 먼저, 긍정 대답에 대한 이유로는 AI 번역시대를 맞아 기계번역 사용은 피할 수 없고, 그에 대한 적절한 활용 방법을 학습하고 싶다는 의견이 대

부분이었고, 수업시간에 기계번역을 사용하면 그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학생들은 기계번역의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을 하나의 문법 또는 어휘 학습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향후 번역 작업에서 기계번역이 피할 수 없는 대세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반면, 부정 의견으로는 결과물에 오류가 있어서 수업시간에 정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스스로 번역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수업 시간에는 교수자가 있기 때문에 기계번역보다 교수자의 지도를 통해 본인의 번역실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결국, 외국인 학생들은 향후 번역 작업에 기계번역이 필수적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나 기계번역에 높은 신뢰도를 주지 않으며 부족한 한국어 실력을 보완해줄 사전과 같은 도구로 인식한다는 의미이다. 이들은 스스로의 번역 실력을 갖추어야 하고 그것을 도와줄 신뢰할만한 대상은 교수자이며, 기계번역은 자가 학습의 보조 수단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4. 맺음말

한국의 문화 역량이 커지고 그에 따른 한국어 통번역 수요가 늘면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한국어 통번역 분야 종사를 목표로 두고 한국 대학을 찾는 경우도 늘어났다. 때문에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어로서의 번역전공 학과를 개설하는 대학원들 역시 동반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번역 교육에 대한 고민, 그 중에서도 점차 일상화되어가고 있는 기계번역에 대한 교육 또는 실태 파악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 유입이 잠시 감소하였으나 최근 다시 증가 추세가 회복된 상황에서 앞으로도 한국어 번역을 전공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수는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외국인 번역 전공 학습자에 대한 논의, 이들의 기계번역 사용에 대한 인식 및 실태, 교육 방향 탐구 등이 필요한 시점이며,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해 국내에서 한국어 번역을 전공하는 외국인 석사 전공자들이 번역수업 과업 수행에 기계번역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기계번역에 대한 이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한국어 번역교육에 활용하였다. 조사 결과, 80%에 육박하는 응답자가 이미 기계번역을 번역과제 작성에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고, 사용 이유로 ‘다양한 한국어 표현을 취득하기 위함’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보아 자가 학습 및 점

검을 위한 사전의 용도로 기계번역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계번역을 사용한 번역과제 작성이 본인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 대답이 과반수(‘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63%, ‘매우 도움이 된다’ 1.4%)를 넘어섰다는 답변과 반대로 기계번역을 수업에 정식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 재미있는 점은, 80% 가까운 응답자가 번역 과제물 작성에 기계번역을 사용한 경험이 있고, 60% 이상이 기계번역 사용이 번역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것에 비해 기계번역에 대한 만족도 또는 신뢰도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52.5%, ‘매우 좋지 않다’ 3.3%로 그리 높지 않다는 사실이다.

결국 한국어 번역을 전공하는 외국인 석사생들은 기계번역을 높은 비율로 사용하고 있고, 기계번역 결과물을 통해 얻어낸 다양한 한국어 표현이 본인의 번역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지만, 기계번역 결과물의 부자연스러움과 오역, 문법오류 등의 단점을 지적하며 ‘자가학습 도우미’로서의 역할로 한정짓고 있다. 이는 기계번역을 수업에 정식으로 사용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는 결과와 그 이유가 교수자의 지도를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에서 더 확실해진다. 한국어 번역 전공 외국인 학생의 기계번역에 대한 낮은 신뢰도나 부정적 사용 인식은 강수정(2021: 55)이 지적한 전문통번역 전공자들이 기계번역에 호의적이지 않은 것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기계번역으로 인해 번역시장의 일부를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나 경쟁의식에서 비롯되었다기 보다는 기계번역 결과물을 자신의 과제로 제출하는 것에 다소 죄책감을 갖는 것 같다. 높은 기계번역 사용 경험 비율과 다르게 그 빈도는 5회 미만으로 낮게 나타난 것과 향후 기계번역 사용 계획을 묻는 질문에 ‘정말 모르는 문장이 있다면 참고한다’거나 ‘과제가 어렵다면 사용하겠지만 자주 사용하지는 않겠다’는 등 제한을 두는 것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기계번역을 활용하되 역할에 제한을 두어 그 범위를 통제하고, 번역수업에서는 교수자의 지도를 통해 본인의 번역 실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4.4에서 제시한 응답자의 답변에서도 드러나듯, 앞으로 번역에서 기계번역의 사용은 피할 수 없는 대세임을 학습자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이제 기계번역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같이 발전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통번역대학원과 마찬가지로 한국어 번역 교육과정에도 CAT tool 활용이나 포스트에디팅 교육과정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민해보아야 한다. 다만, 한국어 번역전공 석사과정은 그 목표가 한국어 학습에만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학부 한국어 번역전공과 다르고, 전문통번역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

는다는 점에서 통번역대학원과도 다르기 때문에 번역수업에 기계번역을 도입하기에 앞서 4 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기계번역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기계번역에 대한 개념, 사용 목적, 향후 발전 추세, 번역 수업 중 기계번역 활용의 이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학생들이 그 필요성을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을 전공으로 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기계번역보다 교수자의 지도에 더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교수자가 충분히 인식하고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기계번역 활용 이해’나 ‘번역시장과 기계번역 사용 현황’ 등을 주제로 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사전 또는 사후 편집과 같은 기계번역을 활용한 번역실습 수업을 실시하는 등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소규모 설문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중국어권 유학생이 다수를 차지하는 현실 상황으로 인해 응답자의 국적 비율이 균등하지 못하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때문에 본 연구의 조사 결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을 전공하는 다양한 국가 출신 학생들의 인식을 객관화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구체적인 번역수업 중 기계번역 활용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도 본 연구의 한계이다. 그럼에도 증가 추세에 있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번역전공 외국인 학생들이 기계번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일부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향후 좀 더 다양하고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여 국적, 모국어 등 여러 변이 요소에 따른 인식 조사를 진행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번역 교육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지속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수정. (2021). 「통번역대학원생들의 기계번역 사용현황과 인식에 관한 연구」. 『번역학연구』 22(3): 41-63.
- 김혜림. (2021). 「학부생 번역자는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중국어-한국어 파파고 기계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4(1): 109-135
- 마승혜. (2018). 「한영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에 대한 경험적 고찰: 학부 교육 과정 및 결과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2(1): 53-87.
- 박혜경. (2018). 「석사 과정의 기계번역 수업에 대한 소고:한일번역 전공생의 포스트에디팅 사례를 통하여」. 『번역학연구』 19(3): 163-192.
- 심지영. (2021). 「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 전공’ 설계 사례 연구」. 『인문사회 21』 12(2): 1637-1650.
- 윤창숙. (2022). 「통번역 전공생을 위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연구: <한국어 숙달> 교과와 설계 및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언어과학』 21(9): 117-137.
- 이상빈. (2016). 「트랜스크리에이션, 기계번역, 번역교육의 미래」. 『통역과 번역』 18(2): 129-152.
- 이상빈. (2017). 「학부번역전공자의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통역과 번역』 19(3): 37-64.
- 이상빈. (2018a). 「학부 번역전공자의 구글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에 관한 현상학연구」. 『통번역학연구』22(1): 117-143.
- 이상빈. (2018b). 「국내학부 번역전공자의 구글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과정(process) 및 행위 연구」. 『번역학연구』 19(3): 259-286.
- 이선우·이상빈. (2023). 「기계번역 사용, 기계번역 교육, 번역가 진로에 관한 인식 조사: 학부번역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통역과 번역』 25(1): 49-73.
- 이현주·린위쑤안. (2021). 「학부생들의 중국어 수준에 따른 번역기 활용에 관한 연구」. 『중국언어 연구』 97: 423-445.
- 임형재·송은정. (2015). 「외국인을 위한 통번역 목적 한국어 교육 연구- 중국어 화자의 한국어 통번역 교육현황과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42: 303-332.
- 함계임. (202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번역 학습자를 위한 읽기 수업 과정 설계」. 『인문사회 21』 13(2): 1785-1796.
- 황은하·심지영. (2021).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번역 전공진학 수요 조사 및 변인 분석」. 『인문사회 21』 12(3): 1815-1828.
- Doherty, S and Moorkens, J. (2013). Investigating the experience of translation technology labs: Pedagogical implications. *The Journal of Specialised Translation* 19: 122-136.
- Arenas, A. G. and Moorkens, J. (2019). Machine translation and post-editing training as part of a master's programme. *Jostrans: The Journal of Specialised Translation* (31): 217-238.

- Kenny, D. and Doherty, S. (2014).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in the translation curriculum: overcoming obstacles and empowering translators.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8(2): 276-294.
- Rossi, C. (2019). Introducing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in translator training: from uses and perceptions to course design, and back again, *Revista Tradumàtica. Tecnologies de la Traducció* 15: 48-62.

This paper was received on 8 May 2023; revised on 14 June 2023; and accepted on 20 June 2023.

Author's email address

chiyin@naver.com

About the author

Jieun Kim is a Professor at KFL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translation, interpretation, Chinese literary translation, machine translation and translation teaching.